정읍 역사·문화적 위상 상승 계기

정읍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시,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등 2건 전북자치도 지정 유산 등재

정읍시가 신청한 '정읍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복장유물(井邑 彌勒寺 木造大勢至菩薩坐像·腹藏遺物)'과 '진묵조사유적고(震?祖師遺蹟攷)'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시는 이번 지정이 정읍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 상동 미륵사에 소재한 '목조대세지보살좌상·복장유물'은 높이 57.2㎝, 슬폭 35㎝의 목조상으로, 복장유물은 후령통 일괄 6점, 다라니 14점, 경전 2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존상은 17세기 후반~18세기 초 활동한 조각승 색난(色難)의 초창기 작품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불교미술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 다른 지정 문화유산인 '진묵조사유적고'는 정읍 옹동면 화엄사에 보관된 상하(上下)권 1책의 목판본이다. 전북을 대표하는 고승 진묵의 행록을 담은 이 문헌은 유학자 김기종과 초의선사 의순이 함께 편찬했으며, 19세기 학자 김정희의 교정을 거쳐 1857년(철종 8) 완주의 봉서사에서 간행됐다.

진묵의 삶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전북 불교계 주요 인물의 구장본이라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가치 있는 유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읍이 품격 있는 역사·문화·유산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찾아가는 경미수리 교육 진행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센터장 남해경)는 지난 10~11일 2일간 익산 용안동헌에서 호남권 문화유산돌봄센터 직원들과 합동으로 '찾아가는 경미수리 교육(전통미장)'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호남권 돌봄사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 한국문화유산돌봄협회 주관으로 전북서부, 전북동부, 광주 문화유산돌봄센터 경미수리팀이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보수 작업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혔다. 또한 경미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심화 학습으로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전통미장 권위자인 김진욱 명장의 이론 강의와 현장실습으로 진행됐다. 석회 혼합, 훼손 부위 정리, 기초 돌 설치, 줄눈 맞추기 등 전통 기법을 다룬 보수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의 문화유산 보수 기술 숙련도를 높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은 최근 임직원이 함께한 '굿윌스토어 기부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기부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전주문화재단 제공>

전주문화재단, 자원순환체계 확산·취약계층 자립 힘 보태

'굿윌스토어 기부 캠페인'… 임직원 참여로 모은 250여점 물품 기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최근 임직원이 함께한 '굿윌스토어 기부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기부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자원순환의 날(9월 6일)' 취지에 맞춰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진행됐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류, 도서,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등 약 250점을 모아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에 전달했다.

기부된 물품은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재판매돼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에 쓰인다. 이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자원 순환 체계 확산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굿윌스토어는 기부 물품 판매 수익으로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사회적 기업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집에서 쓰지 않던 물건을 기부하면서 환경을 살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자원 재활용은 단순한 분리배출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산"이라며"앞으로도 문화와 환경, 사회적 가치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깡패와 굿패

1부 '깡패와 장구' (23)

농악경연대회

-오상근-

몽당연필이 떠올랐다. 투이자 수녀의 거처에서 봤던 몽당연필. 투이자는 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녀는 선진국이며 풍족한 나라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했다. 고창에 온지 40년이 되었다고 했다. 거의 평생을 이곳에서 지내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있다. 대체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

투이자 수녀가 동식 앞에 아름드리 양버즘나무로 우뚝 서 있다. 커다란 잎들이 울창했으며 그 풍성한 잎들은 바람에 한들거리며 평화로움과 자애로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동식은 머리를 거세게 흔들어 그 나무를 지워버리려 했다. 나이가 들더니 마음도 약해지고 감상에 젖으려 한다.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는 게 싫어 동식은 얼른 탕을 나와 샤워기를 틀고 쏟아지는 찬물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복잡한 머리를 식혀야 했다.

읍내로 나와 중국집에 들러 짬뽕을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풍물연주가 들려왔다. 읍내에서 무슨 행사를 하나?

중국집을 나온 동식은 지남철에 쇠조각 끌려가듯 농악 소리를 따라갔다. 연주는 사물놀이 정도의 악기 수가 아닌 제대로 꾸려진 농악단의 연주였다.

고창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연주였다. 학생들이 수업할 시간인데 학교에서 풍물을 연주해도 되나 하다가 오늘이 일요일임을 깨달았다.

동식은 초등학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운동장 정면에 제5회 고창농악경연대회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운동장 가에는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고창 14개 면의 농악단이 전부 모였는지 거의 발 디딜 틈 없이 알록달록 치복을 입은 연행자들로 북적였다.

어린 아이들도 보였다. 어른들 못지않게 형형색색의 치복을 입고 머리에는 고깔을 썼는데, 상쇠와 꽹과리를 치는 어린 쇠치배들은 우도 농악의 특징인 뻣상모에 부포까지 달고 있었다.

잡색들도 다들 복색을 갖춰 입었는데 어린 아이들이라 다들 귀엽고 예뻐 보여 동식은 무의식중에 입에서 슬며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시끄럽고 복잡한 속을 달래는 대는 풍물연주만한 게 없다. 동식은 아예 자리를 잡고 구경하려 자리를 물색하다가 빈 의자가 보여 얼른 가서 앉았다.

동식의 복색은 역시 하얀 나이키 추리닝에 같은 색의 스니커즈 운동화였는데 눈이 달린 사람이라면 이 자가 건달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어, 누군데 이 의자에 앉았느냐? 의자를 비워달라고 따지는, 사람 볼 줄 모르는 자는 없었다.

차양막에 '무장읍성놀이마당농악단'이라 쓰여 있었다.

동식은 평소 습성대로 팔짱을 끼고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에 착 올리고 거만하게 상체를 뒤로 재친 채 공연을 구경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는지 얼른 팔짱을 풀고 꼬았던 다리도 바르게 하였으며 상체도 꼿꼿하게 세워 단정한 자세를 취했다.

풍물이 연주되는 현장에서는 동식은 건달이고 싶지 않았다. 물론 복장은 건달임을 증표하고 있었지만.

다들 살고 있는 마을의 명예가 걸린 탓인지 나름 구색을 갖추고 나와 정성껏 공연을 진행했다. 잡색과 치배들을 적절히 안배했고,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막 연행을 마친 농악단이 들어왔는데 동식이 앉아 있던 '무장읍성놀이마당농악단' 차양막으로 몰려왔다.

공연이 끝난 얼굴들이라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다들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고, 무엇이 잘 되었느니 무엇이 잘못되었느니 서로 이야기들을 해가며 들어왔다.

그중 나이가 들어 보이는 쇠치배 복장을 한 사내가 동식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의자를 비워달라고 말을 하려는 걸까. 동식은 애써 사내의 시선을 외면하려 했다.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